

#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Ethnic Identity)에 관한 연구

임영언\* · 김태영\*\*

---

## 目 次

---

- I. 머리말
  - II. 민족 정체성에 관한 이론연구
  - III.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 IV. 민족 정체성에 관한 분석결과
  - V. 결론 및 시사점
- 
- 

## I. 머리말

최근 세계화의 추세로 일본사회에서도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사회의 도래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국제화 추세와 한류의 영향으로 이전과는 달리 재일한인들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기만 해도 일본에서 재일한인은 69만 명 이상이였다(1991년·외국인 등록자수). 그러나 재일한인은 계속 감소하다가 2006년에는 60만 명을 초과하지 못했다. 재일한인의 감소원인이나 배경 중의 하나는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에 있다. 재일한인의 일본국적 취득자 수는 매년 1만 명 전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재일한인’라고 하면 한국국적·조선국적자

---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강릉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부교수

만을 대상으로 지칭할 경우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그 이유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황이나 의식, 그리고 정체성까지를 포함시켜서 언급하지 않으면 ‘재일한인’의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재일한인들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국제화로 인한 일본사회에서의 다양한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다문화사회의 도래, 2000년도에 들어서는 한류의 영향 등으로 자신들의 국적이 갖는 의미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고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재일한인청소년들도 예외없이 그들이 속한 집단(민단, 총련)의 특성에 따라 준거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키고 다양한 경험과 환경에 접촉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sup>.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한인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와 형성에 관한 최근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 II. 민족 정체성에 관한 이론연구

### 1. 재일한인의 인구학적 변화

최근 일본사회의 다민족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성입국관리국의 통계(법무성입국관리국, 2007)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자수는 2005년을 시작으로 200만 명을 돌파해 2006년 말 현재 208만 4,919명으로 과거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숫자는 2005년 말과 비교해 7만 3,364명(3.6%)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에 비하면 66만 9,783명이 증가한 것이다<sup>2)</sup>.

현재 일본 총인구 1억 2,777만 명 중에 외국인등록자의 비율은 1.63%이다(2005년 말 현재는 1.57%). 외국인등록자의 국적(출신지)수는 188개국으로 상승해, 2002년 138개국에서 50개국이 증가했다. 또한 재일한인은 2006년도 말 현재 598,219명으로 외국인 전체 28.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미국 순이었다. 한국국적자·조선국적자는 특별영주자 수의 감소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1) 윤일성(2003)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논총』 제34집. pp.270-279 참조

재일한인의 호칭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에 관한 논의 및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이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2) 재외동포신문 2007년 10월 12일자 신문에 의하면 재일한인 수는 민단, 총련, 일본국적 취득자를 포함하여 2005년도 약 90만 명에서 2007년도에는 893,74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 재일한인 598,687명의 숫자는 실질적인 의미의 ‘재일한인’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종래 재일한인은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별영주자’에 해당되며 그 숫자는 451,909명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재일동포라고 불리어졌던 사람들의 수는 약 45만 명 정도이다< 표 1참조 >.

<표 1> 재류자격 별 외국인등록자수 추이

재류자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구성비 (%)	전년 대비 증가율 (%)
총수	1,778,462	1,851,758	1,915,030	1,973,747	2,011,555	100.0	1.9
영주자	684,853	713,775	742,963	778,583	801,713	39.9	3.0
영주자	일반	184,071	223,875	267,011	312,964	17.4	11.8
	특별	500,782	489,900	475,952	465,619	22.5	-2.9

주) 『平成19年版在留外國人統計』 (出版) 財団法人入管協會、2006年末現在

이와 같이 재일한인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 중 하나는 1985년 일본 국적법 개정으로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선택에 있어서 ‘부모양계주의’의 도입에 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까지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은 부친의 국적을 계승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부모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재일한인청소년의 결혼상대자의 90%이상이 일본인으로 알려졌다. 일본사회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재일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일본이름(통명)을 사용함으로써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재일한인의 청소년끼리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은 아주 어색한 일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일본인과 서로 사귀는 경우가 많아지고 일본인과의 결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재일한인들의 직접적인 감소요인 중의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다른 요인으로서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취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수는 매년 약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2년부터 2006년까지 재일한인의 일본국적 취득자 수는 총 30만 명 이상이였다.

<표 2>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수 추이<sup>3)</sup>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1952	232	1966	3,816	1980	5,987	1994	8,244
1953	1,326	1967	3,391	1981	6,829	1995	10,327
1954	2,435	1968	3,194	1982	6,521	1996	9,898
1955	2,434	1969	1,889	1983	5,532	1997	9,678
1956	2,290	1970	4,646	1984	4,608	1998	9,561
1957	2,737	1971	2,874	1985	5,040	1999	10,059
1958	2,246	1972	4,983	1986	5,110	2000	9,842
1959	2,737	1973	5,769	1987	4,882	2001	10,295
1960	3,763	1974	3,973	1988	4,595	2002	9,188
1961	2,710	1975	6,323	1989	4,759	2003	11,778
1962	3,222	1976	3,951	1990	5,216	2004	11,031
1963	3,558	1977	4,261	1991	5,665	2005	9,689
1964	4,632	1978	5,362	1992	7,244	2006	8,531
1965	3,438	1979	4,701	1993	7,697	合計	304,699

주) 『平成19年版在留外國人統計』 (出版) 財団法人入管協會、2006年末現在  
표 중 수치는 실수, ( )안은 %

일본국적 취득자는 재일한인 사회에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 최근까지도 재일한인 문제를 거론할 경우 일본국적 취득자(귀화자)는 재일한인 다음(2차적인 존재)으로 언급되는 존재였고 이른바 재일한인 세계에서 중심보다는 주변에 위치한, 즉 재일한인 중에서도 소수민족 중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표 2>와 같이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는 더 이상 소수민족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증가했다. 더구나 가까운 장래에 ‘재일한인이라고 하면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를 의미하는 날이 올 것이며 재일한인문제를 언급할 때 일본국적 취득자(귀화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면접조사에 응했던 어떤 일본국적취득자는 ‘한국계 일본인은 재일한인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결혼관과 세계관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일본국적취득자의 존재는 재일한인이라는 존재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존재방식의 재검토를 촉진시키는 요소이기도 하다.

3)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수는 2001년도와 200년도 이후에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귀화자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002년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와 2003년에 시작된 ‘겨울연가’의 지상파 방송이 일본 전국에 확대 되면서 한국대중문화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재일한인들의 이미지가 높아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에서 재일동포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기란 상당히 어려웠다. 일본국적 취득과정에서 재일한인의 경제사정과 정치사상 등 많은 것들이 검증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는 많은 국가출신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입국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당시 일본 버블경기를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량 입국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출입국 및 난민인정법’이 개정되어 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과 그 자손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일본출입국법의 개정을 계기로 ‘일계인 (日系人)’이 일본사회에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은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법적대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 상황에 대응하여 외국인 정책이나 법률정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이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일본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재일한인’을 의미 했고 또한 실제로 외국인 전체 비율의 90%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수가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제는 ‘재일외국인’이 ‘재일한인’을 가리키는 시대는 이미 과거의 일이다.

한때 재일한인의 일본국적 취득행정을 담당했던 어느 관료는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일본 생활습관도 100% 이해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의 귀화(일본국적 취득)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힘들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일본국적 취득을 허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급증하면서 일본에서 재일한인의 생활방식과 국적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계기가 되었다.

## 2. 민족 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

재일한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재일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재일한인들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재일한인의 민족 정체성 및 민족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재일한인에 관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재일한인 기업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재일한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재일한인청소년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한다면, 재일한인의 교육에 관한 연구, 재일한인의 민족 정체성 및 민족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재일한인청소년을 비롯한 재일한인에 관한 연구로는 해방전후까지 일제 식민지하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시기 재일한인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의환의 ‘일제하 재일동포사회의 분석 연구’<sup>4)</sup>, 1957년 박

재일이 쓴 '재일조선인에 관한 종합조사 연구'<sup>5)</sup>, 박강래와 와타나베 히로시의 공저인 '재일한국인 사회의 종합조사 연구'<sup>6)</sup> 및 이유환의 '재일한국인 50년사: 발생인의 역사적 배경과 해방 후의 동향'<sup>7)</sup> 등이 있다. 이들 논문의 주요내용은 주로 재일한인사회의 형성과 일본에서의 생활상, 일제 강제연행하의 재일한인사회의 실태 및 민족독립운동, 노동운동, 교육상황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연구들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재일한인에 관한 실태나 의식조사는 민단이나 총련이 실시한 비공개되고 있는 조직내부의 자체조사 자료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일한인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는 1986년, 1987년, 1994년 등 3회에 걸쳐 재일한국청년회의소가 실시한 '청년의식조사'가 유일하다

또한 1995년 한국대사관이 주관한 '재일한국인생활의식조사', 그리고 1997년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재일한국인의 사회성숙과 사회의식조사', 민단에서 1987년에 실시한 '재일동포의 생활실태와 의식조사', 2000년도에 민단이 주관한 '재일한국인 의식조사'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주요 결과는 교육에 의한 민족차별의 극복의지와 민족 정체성의 약화에 따른 재일한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명수·후쿠오카야스노리(金明秀·福岡安則, 1994)가 공동으로 1993년도에 실시한 '재일한인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조사'에서는 일본태생의 18세~30세까지 한국적을 가진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는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이 차별과 불평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된다.'는 기존의 입장보다는 '획득'과 '계승'에 의한 자생적인 재생산과정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이번 연구와 상당한 관련성이 깊다. 특히 이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후쿠오카(1993)는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재일한국조선인: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라는 논문을 발표한다<sup>8)</sup>. 후쿠오카는 인도인 2세의 민족 정체성을 연구한 허트닉(Hutnik, 1986)의 정체성 유형분류 이론을 발전시켜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의 유형을 '공생지향', '조국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으로 분류했다<sup>9)</sup>. 이 논문에서는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의 유형분류를 연구하기 보다는 정체성의

4) 김의환(1989) 「日帝下 在日同胞社會의 分析 研究」 『國史館論叢』 제2집, pp.253-288

5) 朴在一(1957) 『在日朝鮮人に關する總合調査研究』 新紀元社

6) 朴康來·渡邊博史(1963) 『在日韓國人社會の總合調査研究』 民族文化研究會

7) 李瑜煥(1960) 『在日韓國人の五十年史: 發生因に於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於ける動向』 新樹物産

8) 福岡安則(1993) 『在日韓國・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中公新書

9) 여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앞의 논문(윤일성, 2003), pp.279-283 참조할 것

형성과정상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형연구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연구가 될 것이다.

다음은 윤건차(1999)의 재일한인 민족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자<sup>10</sup>).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재일한인의 민족 정체성은 일본과 조선(한국과 북한을 포함)이라는 두 개의 국가와 민족, 출신과 언어, 문화와 습관이 혼재되어 있고 일본과 조선을 잇는 역사적 기억이 공유되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며 편견이나 차별에 맞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침묵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일한인의 민족 정체성은 유동적이며 여러 관계성의 변화 속에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재일한인들이 재일1세~2세에서 재일 3세~4세로의 세대교체에 따라 동질화된 민족으로서의 의식과 개념이 점차 약화되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정체성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의 연구결과는 재일한인의 다양한 민족 정체성과 일본인과의 공존과 공생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재일한인 기업이나 재일한상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이 실시한 ‘재일한인사회의 경제환경(최석신, 임채완 외, 2005)’와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임영언, 임채완, 2006)’에 관한 조사이다. 이 두 연구는 재일한인 자영업자와 기업가를 대상으로 기초조사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재일한인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는 귀화자 증가로 인한 민족 정체성 약화, 청소년의 민단 조직 이탈심화, 재일한일청소년의 다양한 민족 정체성 등장, 재일한인 사회의 직원간의 강한 네트워크와 모국과 해외 한인간의 약한 네트워크에 의한 연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와 후쿠오카(1994)의 재일한인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청소년 성장과정상의 민족적 전통성’이 가정 내에서의 계승과정에 크게 좌우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단체의 각종 조직활동이나 행사의 참가경험’에 의해서도 민족 정체성이 획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윤건차(1999)는 재일한인의 민족 정체성을 시대와 환경,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보았으며 현지인과의 공생관계로서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근거하여 파악해보고 향후 연구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0) 윤건차(1999) 「재일동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59-260

### Ⅲ.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이 연구자료는 재일한인청소년들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현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의 보완자료로서는 현지 재일청소년단체에서 수집한 각종 행사자료나 발간책자를 참고하였다. 재일한인청소년의 변화는 일본법무성출입국관리국이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이외에도 재일한인청소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6년도 말 일본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재일한인청소년에 해당되는 16세~24세까지의 숫자는 65,170명이었다. 그러나 재일한인이 민단과 총련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본국적취득자도 현재 30만 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표성이나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를 활용하여 16세~24세까지의 청소년을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하여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총 633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다<sup>11)</sup>.

면접조사는 2007년 8월에 약 3주간에 걸쳐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이들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들의 사정에 따라 집단 또는 개인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 지역인 세지역이 고르게 분포 되도록 선정하였다. 면접조사의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 부모와 가정사정,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 한국에의 관심, 민족 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밖에 청소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관계나 구축정도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관련단체의 회장이나 민족단체에서 봉사하는 지식인 및 전문가집단에 대해서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현지 재일한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선정하였다.

특히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인근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이들 지역들은 재일한인들이 집중된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오사카와 인근 교토지역은 도쿄지역에 비해 재일한인청소년단체(특히 총련계)의 활동이 아직도 왕성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의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는 지역의 특성상 국제화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지역의 재일한인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흐름은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국적변경이나 국적취득자들의 ‘재일’이라는 자기들만의 민족 정체

11) 민단청년회 부회장의 면담에 의하면 전국회원수는 약 2,500명이며 성비는 남성이 60%, 여성이 40%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적으로의 국적변경은 일본에서 한류의 부상과 일본인 납치문제, 핵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선적(총련)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의 형성은 그동안 민단과 총련, 귀화자로 구분된 3분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그들만의 확고한 공동체를 구축하여 전 세계로 그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들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일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과 향후 전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V. 민족 정체성에 관한 분석결과

### 1.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의 실태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 <표 3>는 재일청소년들에게 민족 정체성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민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점이 자랑스롭다.’라고 질문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46.9%가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0.9%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한인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니라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일한인청소년들이 한민족의 전통이나, 역사, 관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노력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라고 평가하도록 질문한 결과 51.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15.2%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재일청소년들이 한국문화나 역사, 관습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국내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재일한인단체나 조직참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나는 주로 한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라고 질문하여

선택하도록 한 결과, 29.3%가 한인단체나 조직참여에 무관심하다고 응답했으며 34.9%만이 단체나 조직에 참여하고 응답했다. 다른 질문항목에 비해 재일한인청소년들의 단체나 조직참여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청소년 세대가 민단이나 총련조직으로부터의 조직이탈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중에서 재일한인청소년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는 학생회, 한국유학생동맹, 재일조선인유학동맹, 재일한국청년회, 재일조선인장학회 등 주로 학생활동과 관련된 서클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은 재일한인청소년들이 한민족의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한민족의 배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3%,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한국학생들이 재일한인청소년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재일한인청소년 자신들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향후 청소년들 대상의 재일한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일한인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한민족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8.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 ‘보통이다’가 38.6%로 한민족에 대하여 관망하는 자세가 여전히 높았으나 한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한인청소년들은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대체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였으나 재일한인청소년의 22.7%가 ‘거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청소년들의 단체나 조직활동과도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재일한인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는 재일한인청소년들이 다른 제3자에게 한민족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나타났으며 26.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재일한인청소년의 경우 대개 어떤 계기로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갈등과 결심 후에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제 3자에게까지도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민족(조선민족) 정체성 관련 질문항목

관련항목	①	②	③	④	⑤	합계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19 (3.1)	56 (9.1)	252 (40.9)	130 (21.1)	159 (25.8)	616 (100)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33 (5.4)	60 (9.8)	205 (33.4)	185 (30.1)	131 (21.3)	614 (100)
나는 주로 한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77 (12.5)	102 (16.6)	160 (26.0)	113 (18.4)	163 (26.5)	615 (100)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배경에 대해 잘 안다.	63 (10.2)	142 (23.1)	224 (36.4)	137 (22.3)	49 (8.0)	615 (100)
나는 내가 한민족(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24 (4.5)	46 (8.7)	204 (38.6)	113 (21.4)	142 (26.8)	529 (100)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47 (7.7)	92 (15.0)	205 (33.5)	135 (22.1)	133 (21.7)	612 (10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52 (8.5)	111 (18.0)	209 (34.0)	132 (21.5)	111 (18.0)	615 (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먼저 자신과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통성명(일본식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까지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 어떤 친구나 동료가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밝히고 새롭게 정립시켜나가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 개인의 경험과 주위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 어느 청소년은 자신이 ‘재일조선인유학동맹’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재일한인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식 이름만을 고집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간적인 입장이라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주변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민족의 배경에 대해서도 ‘잘 모

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를 초과하였다. 또한 일본 내의 민족단체나 조직에의 참가비율을 조사한 결과 29.3%가 '무관심 하다'고 응답해 민족 정체성의 약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1.4%가 '한민족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T-test 및 ANOVA분석결과

다음은 민족 정체성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평균은 남성이 3.13, 여성이 3.24로 여성의 민족 정체성이 남성보다 평균값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1.338, p<.05$ ).

<표 4> 민족 정체성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남성 (n=291)	여성 (n=341)	t(p)
	$\bar{x} \pm S.D.$	$\bar{x} \pm S.D.$	
민족 정체성 평균 (남성-여성)	3.13 ± 1.156	3.24 ± 1.007	-1.338 (.030)

다음은 연령별, 이민세대, 거주지역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족수입, 아버지 학력, 현재신분, 부모님 민족배경, 국적, 초등학교 출신별, 중학교 출신별, 고등학교 출신별 등 각 항목별 민족 정체성에 관한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ANOVA분석결과와 사후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먼저 연령별 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별 민족 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13.049,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21세~25세인 집단이 16세~20세인 집단과 1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 정체성 평균이 더 높았다( $p<.05$ ). 즉, 고등학생보다도 대학생들의 민족 정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대별 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026,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3세대 집단과 4세대 집단이 이민세대를 모르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 정체성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p<.05$ ).

현재신분별 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분석결과, 민족 정

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94.605,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 집단과 직장인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민족 정체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p<.05).

부모의 민족 배경별 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7.174,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두 분 다 한인인 집단이 어머니만 한인인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민족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 민족 정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43.341,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조선국적 집단이 한국국적 집단 보다 평균이 높았고 (p<.001), 일본국적 집단보다도 높은 평균을 보였다 (p<.001).

다닌 초등학교별 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결과, 다닌 초등학교별 민족 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5.826,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체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p<.05).

<표 5> 민족 정체성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구분	변수	N=633	분석결과( $\bar{x} \pm S.D.$ )	F(p)
연령별	15세 이하	35	2.81 ± .854	13.049 (.000)
	16~20세	333	3.00 ± 1.113	
	21세~25세	233	3.50 ± .925	
	26세 이상	29	3.48 ± 1.264	
이민 세대	1세대	6	2.88 ± 1.051	6.026 (.000)
	1.5세대	3	3.43 ± .429	
	2세대	15	2.82 ± .814	
	3세대	456	3.26 ± 1.065	
	4세대	101	3.30 ± 1.022	
거주 지역별	잘 모름	34	2.31 ± .857	2.234 (.064)
	간토지방	58	3.19 ± 1.060	
	아이치	211	3.24 ± 1.211	
	간사이지방	320	3.11 ± .999	
	큐슈	28	3.72 ± .844	
아버지 직업	주고쿠, 시고쿠	16	3.13 ± .951	.165 (.197)
	전문, 관리, 사무	118	3.40 ± .951	
	기술, 상업, 서비스	343	3.22 ± .979	
	농업, 단순노무, 주부	34	3.04 ± 1.167	
	무직	11	3.10 ± .939	

어머니 직업	전문, 관리, 사무	96	3.26 ± 1.060	.112 (.953)
	기술, 상업, 서비스	190	3.24 ± 1.015	
	농업, 단순노무, 주부	234	3.26 ± 1.002	
	무직	15	3.10 ± 1.252	
가족 수입	부족한 편이다	283	3.30 ± 1.058	1.792 (.167)
	보통이다	243	3.13 ± 1.066	
	넉넉한 편이다	92	3.22 ± .993	
	중졸이하	46	3.23 ± .918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중퇴·졸업	153	3.15 ± 1.127	.412 (.744)
	대학교 중퇴·졸업	253	3.27 ± 1.012	
	대학원 이상	61	3.26 ± 1.026	
	고등학생	182	2.45 ± .993	
현재 신분	대학생, 대학원생	283	3.42 ± .920	94.605 (.000)
	직장인	82	3.64 ± .982	
	무직	15	3.05 ± 1.276	
	아버지 한인	52	2.90 ± .986	
부모님 민족배경	어머니 한인	40	2.65 ± 1.115	10.454 (.000)
	두 분 다 한인	516	3.30 ± 1.011	
	한국적	446	3.09 ± .962	
	조선적	117	3.97 ± .885	
국적	일본적	46	2.91 ± .895	43.341 (.000)
	민단계학교	57	2.64 ± .860	
	총련계학교	206	3.91 ± .817	
	일본계 공립학교	299	2.91 ± .937	
초등학교 출신	일본계 사립학교	35	2.92 ± 1.006	45.826
	기타 외국계학교	13	3.22 ± 1.094	
	민단계학교	70	2.79 ± .940	
	총련계학교	192	3.93 ± .778	
중학교 출신	일본계 공립학교	256	2.89 ± .942	43.928 (.000)
	일본계 사립학교	87	2.98 ± .965	
	기타 외국계학교	7	3.31 ± 1.328	
	민단계학교	89	2.62 ± .978	
고등학교 출신	총련계학교	170	3.98 ± .796	46.747 (.000)
	일본계 공립학교	196	2.92 ± .878	
	일본계 사립학교	148	3.17 ± .967	
	기타 외국계학교	10	2.76 ± 1.176	

다닌 중학교별 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3.928$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민족 정체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다음은 다닌 고등학교별 민족 정체성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46.747,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기타 외국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지만,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p<.05).

민단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보다 민족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과정에서 민족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민족 정체성 관련 항목과 거주지역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족수입, 아버지 학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보기 위한 일원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민족 정체성이 한국방문 경험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의 평균은 한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 3.19, 한국에 방문해 본 경험이 없는 집단이 3.60으로 방문한적 없는 집단의 민족 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t=-4.608, p<.05). 이러한 결과는 민족학교의 교육이나 정보화시대의 한류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에 대한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민족 정체성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 (n=334)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없다 (n=220)	t(p)
	$\bar{x} \pm S.D.$	$\bar{x} \pm S.D.$	
민족 정체성 평균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3.19 ± .937	3.60 ± 1.079	-4.608 (.021)

통계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부모가 두 분 모두 재일한인이며 총련계 민족학교 졸업자이고 조선적 소유자일수록 민족 정체성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재일3세~재

일4세가 제일1세~제일2세보다 민족 정체성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방문 여부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한국방문을 한 적이 없는 집단의 민족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 3. 면접조사결과

#### 1) 재일한인청소년의 면접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재일한인청소년의 자기 의지대로, 혹은 부모의 뜻에 따라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 또는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일본국적을 취득했느냐에 따라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재일한인으로서 생활환경이나 차별적 경험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들의 민족 정체성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면접조사에 응해준 FY와 FM 자매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재일한인이 가장 많이 살았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 지역은 태평양 전쟁 중 군수 공장이었던 관계로 많은 재일한인이 징용되어 노동자로서 끌려왔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재일한인들이 많이 남아 생활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일본사회에서 재일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인근주변 지역으로부터도 심한 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자연히 인근지역에 사는 일본인들에게조차도 재일한인들은 심한 차별을 받았다.

일본 내 학교교육의 장에서도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은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 교사들에 의한 재일한인 청소년들을 차별하는 언동은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은 다반사로 일어났다. 일본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의 내용에는 학생들에게 왜 그 지역에는 조선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재일한인들의 도일 이유나 생활상을 이해하려는 교육이 지금까지 실시된 적도 없다. 지금도 여전히 재일한인들에 대한 교육상황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차별적 환경에서 성장한 FK자매에게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은 필사적으로 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주변에 알려져서 좋은 일이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FM씨는 ‘한국이름을 사용할 생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재일한인이라는 신분으로 일본에서는 생활하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미국국적이었다면 전혀 개의치 않고 주변에 공개

했을 지도 모른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재일한인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것은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재일한인(민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른 민족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본에서 한국적을 유지하며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적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 일본국적을 취득했어도 여전히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스럽고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려고 하니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불편하다’라고 했다. FM씨의 이러한 응답배경에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그녀의 생활을 지배해온 부정적인 생활경험과 환경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면접조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재일한인청소년들과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사회에서 아직도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한국에 뿌리를 둔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접조사 대상자의 실명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나 비밀보장 등 특정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다는 약속과 현지점에서는 일반인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제출하는 연구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민족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응해주는 사람들은 없었다. 작금 21세기 국제화 시대의 도래를 주창하는 글로벌시대에 일본사회의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어느 정도 심각하며 지금까지 재일한인이 이러한 차별에 대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면접조사를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한국에 뿌리를 가진 일본국적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면서 생활하고 있는 재일한인청소년들이었다. 가장 큰 이유로서는 ‘이제 와서 한국정부가 재일한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반문이었다. ‘재일한인은 오랫동안 한국정부에 경제발전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었다. 재일한인기업가들은 일본사회에서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과 소수민족으로서 충족되지 못하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지원해주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재일한인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은 재일한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사회를 돌보지 않고 한국만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재일한인을 ‘이용’만 해온 대한민국정부가 이번에는 도대체 무엇을 작정하려는 것인가? 분명히 또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분명히 여기에 소개된 사례만으로는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의 실상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향후 좀더 다양한 재일한인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2)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다음은 면접조사에서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재일한인(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민족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전에 한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론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인으로 살아왔고 외국인등록증을 본 적도 없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왔다. 한국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한국국적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은 없다. 부모님 덕분에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적으로서 차별을 받았거나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지금 내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귀화한 지금은 한국여권도 없고 자신이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욱 완벽히 공부해서 통달하고 싶고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출신지와 한국이름을 몸에 새기고 다니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MC씨).’ ‘장래 결혼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일본국적 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었다. 귀화한 것이 고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FK씨).’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다. 귀화해도 여전히 재일한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재일한인으로서 생활상의 불편한 점은 이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FM씨).’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서도 가령 습관이나 감성 등이 한국에 사는 한국인과 재일한인이 ‘같은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재일한인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일한인은 한국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문화나 습관적인 부분은 일본적이다. 한국인에게 한국의 습관이 있듯이 재일한인의 의식이나 습관적인 상호 허용범위, 문화의 척도(기준)가 다르며 재일한인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다 (FP씨).’

다음은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재일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재일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재일한인들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자부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에 대하여 내 자신은 재일한인으로서 두 개 나라의 문화(일본과 한국)를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국으로부터는 일본인으로서 취급받고 일본국내에서는 재일한인(=한국인)으로서 취급받는다. 두 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내 자신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다 재일한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국으로서의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MC씨).’ ‘재일한인으로 내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FK씨).’ ‘재일한인으로서 내 자신이 확실히 어떤 자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FM씨).’ ‘재일한인에 대한 동일화라고나 할까? 동조가 아니라 재일한인의 현재 상태, 즉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싶다(FI씨).’

이상과 같이 재일한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형성은 그들이 일본 내에서 겪은 경험과 주위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가변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sup>12)</sup>. 따라서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을 거론할 때 단순히 그들을 재일한인으로서 포섭하거나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과정들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재일한인청소년들이 일본이나 한국 어느 한쪽만을 고집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재 일본의 국제화와 더불어 외국인의 증가, 일본 내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정책의 완화,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의 증가, 청소년의 민족단체나 조직이탈의 심화 등 민족적인 위기감의 조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가변적인 민족 정체성에서 재일한인만의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 즉 ‘재일’이라는 새로운 민족단체의 결속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12) 앞의 책,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p.312

윤건차(1999) 역시 ‘재일’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정된 것이 아닌 가변적인 것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적인 조선인, 일본인, 재일이 존재할 수 없으며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즉 정치나 경제적인 변동에 의해 정체성이 변해간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재일’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와 타자와의 공존의 길의 확보라고 주장한다.

13) 앞의 책,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p.313,

윤건차의 논의에 따르면 ‘재일’의 바람직한 정체성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 억압과 피억압, 가해와 피해의 상대적인 개념보다는 세계의 역사적인 경험을 하나의 공통경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 의식, 민족의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타자에 대한 열린 자세, 자기와 타자에 대한 성찰과 화해,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재일한인사회에서 민족이나 취직차별에 의해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재일 청소년들은 민족 정체성 하나만으로 민단과 총련이 주관하는 청년회활동이나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시기가 있었다. 1970년경 만해도 재일한인의 대부분이 동질화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일본인의 차별에 저항하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였다<sup>14</sup>.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외국인 정책의 기본논리가 ‘동화와 배제’에서 ‘공생과 다문화주의’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대를 지나면서 재일한인청소년의 의식이 점차 개별화하고 자연적으로 ‘함께 모여 무엇인가 하나의 일을 하자’라는 청년회 활동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80년경에 태어난 젊은 세대가 재일한인청년회의 주축이 이 된 지금, 민족단체의 사회적·시대적 역할, 학생회나 청년회의 활동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건차(1999)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재일한인들이 공생과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민족운동이나 청년활동에는 활기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새로운 생활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성세대가 제대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재일한인청소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한인청소년 3세~4세의 증가나 일본국적취득자의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대개의 경우 재일한인청소년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민족단체는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일본국적자의 대부분이 국적취득을 계기로 재일동포사회에서 멀어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간적인 입장이라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민족의 배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를 초과하였다. 또한 일본 내의 한민족단체나 조직에 참가비율을 조사한 결과 29.3%가 ‘무관심하다’고 응답해 민족 정체성의 약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1.4%가 한민족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14) 尹健次 (1992) 『<在日>を生きるとは』、岩波書店、p.244

ANOVA분석과 T-test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고 고학력자일수록 부모가 두 분 모두 재일한인이며 총련계 민족학교 졸업자이고 조선적 소유자일수록 민족 정체성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재일3세~재일4세가 재일1세~재일2세보다 민족 정체성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방문 여부와 민족 정체성에 관한 분석결과에서는 한국방문을 한 적이 없는 집단의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본 내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재일한인청소년의 면접조사결과, 그들의 일본사회에서 겪은 경험과 처한 환경에 의해 재일한인(민족)이라는 젊은 세대 특유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젊은 청소년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반대로 일본사회의 차별적 상황 때문에 적극적, 혹은 긍정적으로 재일한인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일본사회에서 자신들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의식해 버리는 재일한인청소년들도 분명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일한인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의미는 재일한인 또는 일본국적자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인성’을 가리키며 또한 일본국적자로서는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만의 한국인성’ 혹은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만의 한국인성, 혹은 독자적인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은 재일한인청소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좀처럼 언어로 표현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이 논문의 시사점은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이 그들의 경험과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재일한인 개개인들은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일한인청소년의 ‘독자적인 민족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은 향후 연구과제로 보다 많은 재일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러한 독자적인 한국인성(정체성)을 느끼는 구체적인 장면과 대상들을 실증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김의환(1989) 「日帝下 在日同胞社會의 分析 研究」 『國史館論叢』 제2집, pp.253-288
- 임영언·임채완 외(2006)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북코리아
- 윤일성(2003) 「재일한인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4집, pp.269-307
- 윤건차(1999) 「재일동포의 사회운동과 아이덴티티」, 강덕상·정진성 외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 출판부, pp.259-260
- 최석신·임채완 외(2005) 『재일코리안 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 李瑜煥(1960) 『在日韓國人の五十年史：發生因に於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於ける動向』 新樹物産
- 尹健次 (1992) 『<在日>を生きるとは』、岩波書店、p.244
- 朴康來·渡邊博史 (1963) 『在日韓國人社會の總合調査研究』 民族文化研究會
- 朴在一 (1957) 『在日朝鮮人に關する總合調査研究』 新紀元社
- 福岡安則 (1993) 『在日韓國·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中公新書
- 福岡安則·金明秀·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1994) 『第3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中間報告書』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
- 法務省入國管理局 (2006) 『平成19年版在留外國人統計』 (出版) 財団法人 入管協會
- 東京韓國青年商工會編(1982) 『青商一豊かな同胞社會を目指して』 東京韓國 青年商工會
- Hutnik, N.,(1986) “Patterns of Ethnic Minority Identification and Model of Social Adapt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9(2)

##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国際化が進んでいる中で在日韓国人青少年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議論を念頭におきながらその変化と形成過程に對して、質問調査と面接調査の結果に基づいて分析することである。

日本現地の質問調査を通して回収された633人の在日韓国人青少年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関する研究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まず、在日青少年は男性より女性、年齢が高く高學歷者であり、總連系民族學校出身者ほど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平均値が高く見られた。そして、親が兩方とも在日韓国人であり、朝鮮籍を保持している總連系青少年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平均値が民団系青少年より高かった。

世代別では在日3世～4世が在日1世～2世より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平均値が高く、韓國訪問の経験のない青少年のアイデンティティの平均値が高かった。

本研究の重要な發見点は在日青少年の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化が日本における彼らの経験と環境によって多様であり、マルチ・アイデンティティを現しているながら個々人は「在日」という独自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求め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

キーワード：民族的アイデンティティ、在日青少年、  
マルチ・アイデンティティ、總連係、民団系、朝鮮籍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500-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電 話 : 062-530-2703, 010-9883-2428

e-mail : yimye@hanmail.net